

같이 보기

: 현장탐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과 혁신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NEW START

안전관리실 대리 정유진

글 서정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내기자



2022년 10월 1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체육, 도로, 교통, 공원, 경제, 문화, 복지 분야 26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과 하수, 위생, 소각, 음식물, 매립 분야 18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구환경공단의 통합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시설들은 대구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으로 관련 시설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도 관심과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통합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안전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실의 정유진 대리를 만나 안전보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Q. 대구시를 대표했던 양대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본부 안전관리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A. 양 공공기관 통합으로 인해 공단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었고, 현재는 안전관리실과 재난안전처가 각각 환경사업, 시설사업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특히 많은 인원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A.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특히 2022년 신규로 운영하는 “D-PFC 안전패트롤(구 D-ECO 안전패트롤)”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패트롤과 달리 작업현장의 안전장비 지원 및 안전작업방법 등을 지도·조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화기, 밀폐 등 3대 취약분야 현장작업을 대상으로 사업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안전관리실에서 출동하여 작업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보호구 착용 지도, 현장 교육, 안전 장비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도급과 수급 모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보람을 느낀 적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힘들고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나타내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 보건 관련 프로그램 확대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단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몸풀이-맘풀이> 건강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심리상담이라 참여 전에는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도 참여 후 만족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 상담을 계기로 무기력증 해소를 위한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돌아보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외부 전문기관 심리상담이다 보니 속 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아무에게나 하지 못한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하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보람이 제가 지속해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관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전관리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은 그 행위에 대해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으로, 근무 환경과 작업 현장에서 나와 동료의 안전관리는 물론 가정과 일상에서도 안전관리를 실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이를 생활화, 일상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편의성을 증대해야 하므로 앞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각종 센서와 연락 장비를 갖춘 스마트 안전용품 도입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제시하며,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앱에 업로드하는 등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실의 정유진 대리는 보건관리체계 및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유공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토대 위에 종사자들의 안전 및 건강증진향상을 통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